

Ethylene, 가동중단사태 40달러 급등!

FOB Korea 775-785달러 형성 ... CPC는 재고 많아 적극적 판촉활동

Ethylene 가격은 4월23일 FOB Korea 톤당 775-785달러로 40달러 급등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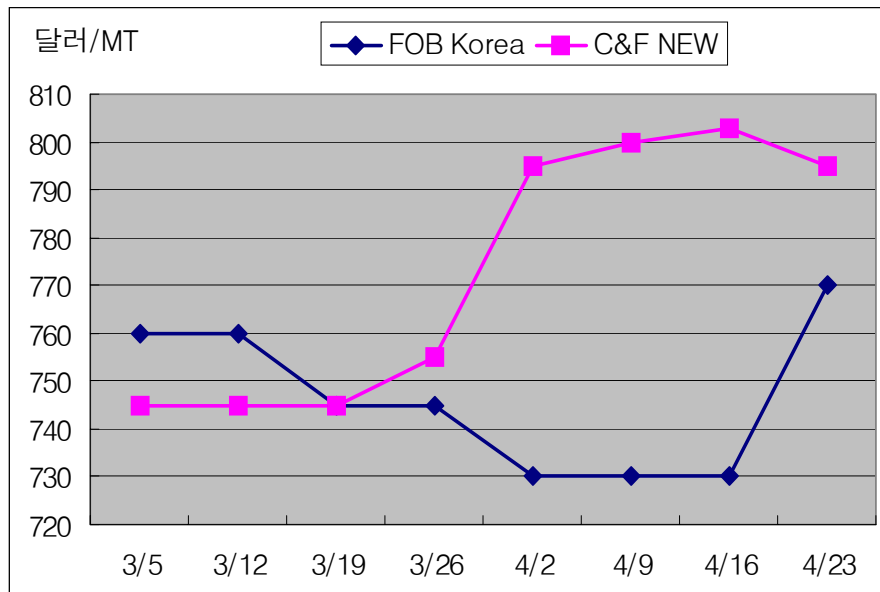
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일본을 비롯해 한국, 타이완의 에틸렌 크래커들이 정기보수에 들어가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으면서 동북아는 10-15달러, 동남아는 52-53달러 올랐다.

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GTP는 5월 하순 거래물량 3500톤을 CFR Merak 톤당 840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GTP는 5월 하순 예정으로 3000-4000톤을 추가 구매할 예정이나 CFR Indonesia 850달러를 요구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타이완의 CPC가 에틸렌 재고 때문에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 추가 상승은 어려운 상태인데, 한국 및 일본기업들은 FOB Korea 780달러에 판매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.

현재 아시아의 에틸렌 마진은 톤당 300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PE 가격이 추가 상승하지 않아 마진 하락이 불가피한 상태이다. 나프타 가격은 &F Jaspas 톤당 345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고 PE 가공코스트는 135달러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.

Ethylene 가격추이



한편, 유럽의 에틸렌 가격은 4월23일 CIF NWE 톤당 790-800달러로 8달러 하락했으며, 2/4분기 계약가격은 607유로를 형성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4/29>